

이승에 장인(匠人)으로 태어나서 이렇다 보람을 느껴보지 못한채
한평생(平生)을 쓸쓸히 살아가야 하는 그들

입 자 장(笠 子 匠)

芮 庸 海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의관(衣冠)의 방(邦)이라 일러온다. 의관(衣冠)의 버릇은 복식(服飾)의 그것과 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지 마는 흔히 의관(衣冠)이라면 입자(笠子) 즉 「갓」을 연상(聯想)하게 된다. 그만치 갓이 고유(固有)한 그리고 최근세(最近世)의 대표적(代表的)인 우리 관모(冠帽) 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갓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통영(統營)갓」이다. 통영(統營)에서 생산(生産)되는 갓이 가장 정교(精巧)하고 품(品)이 있어서 자고(自古)로 갓하면 「통영(統營) 갓」을 으뜸으로 쳐 왔던 까닭이다.

그렇다면 대체(大體)로 언제부터 통영(統營)갓이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이렇다. 구체적(具體的)으로 고증(考證)된바가 없다. 다만 통영지방(統營地方)의 고노(古老)들 말을 들으면 충무공(忠武公)께서 임란당시(壬亂當時) 통제사(統制使)로 계시면서 12공방(工房)이 번성(繁盛)하게 됨에 이래(邇來) 여러 공예(工藝)의 전통(傳統)이 비로소 이 고장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구전(口傳)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제사영(統制使營)의 시치(始置)는 그보다 훨씬 오래인 것이므로 입자(笠子)를 비롯한 각종공예(各種工藝)가 통영(統營)에서 만들어 지게 된 것은 관아(官衙)가 생긴것과 더불어 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그것이 충무공(忠武公)때에 와서 한 위대(偉大)한 인격(人格)에 힘입어 팔도(八道)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실상(實相)인 것으로 짐작 된다.

따라서 통영(統營)갓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全國)에서 서로 다투어 탐내는바 되었음으로 수요(需要)도 많았을 것은 물론(勿論), 이를 공급(供給)할 입자장(笠子匠)도 많아 한 달 여섯 번의 장(場)날에는 갓을 사들이기 위(爲)한 상인(商人)들이 들끓어 은성(殷盛)을 이루었을 것이다.

지금 기록(記錄)에서 각시시대별로(各時代別)로 몇 개소(個所)의 입방(笠房)이 통영(統營)에 있는지를 볼수는 없으나 90고령(高令)으로 갓일을 하는 유상윤노인(劉尙允老人)의 말을 듣자면 구한말(舊韓末)만 해도 통영(統營)에 20여개소(餘個所)의 입방(笠房)이 있었다는 얘기 이니 단(單) 두곳 밖에 남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現實)과는 실(實)로 격세(隔世)의 감(感)이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1964年 현재(現在) 유노인(劉老人)은 일손을 놓았고 전덕기씨(田德基氏)만이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의 명맥(命脈)도 앞이 짧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갓 하나를 모우자면 「양태」를 짓는 사람 총모사를 짓는 사람 하여 따로 따로의 솜씨로 되어 나온 것을 갓방에서 또 가는 다섯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70 내지는 80격(格)의 노장인(老匠人)들이 작고(作故)하는 날이면 일을 이을 만한 젊은 층(層) 후계자(後繼者)들이 없기 때문이다.

양태는 경남거제군둔덕면학산리(慶南巨濟郡屯德面鶴山里)의 모만환(82세 牟晩煥)氏가 「절대」 500줄의 고운 것을 절을 수 있는 유일인(唯一人)이다. 양태를 만드는 공정(工程)은 「대오리」를 만드는데서부터 시작 된다. 대오리를 만드는 순서는 양대칼로 대로 쪼개어 솔에 삶는다. 삶은 대는 양대칼로 이룬다. 이룬 대는 훑가죽을 무릎위에 얹어 그 위에서 양대칼로 훑어서 얇게 다린다. 다린대를 죽인후에 죽도(竹刀)로 대를 나린다. 나린대를 조름쇠 구멍으로 훑어 날대와 빗대 및 절대를 만든다. 절대의 굵기는 사람의 머리칼 보다도 더 고운 것이다.

양태를 절르는 공정(工程)은 먼저 등지다리 위에 양태판을 얹어 놓고, 무명실 두가닥을 새끼 꼬 듯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날대를 꽂아서 고정(固定)시켜 절대 네가닥으로 절어 나간다. 절대 한가닥이 날대두가닥을 넘고, 다음 날대는 두가닥 밑으로 낀다. 위 공정(工程)은 둘 뜨고 하나 낀다고 한다. 이 수법(手法)은 큰 것은 바지개로부터 작은 것으로는 총모자에 이르기 까지 같은 것이니 주목(注目)할만한 것이다. 빗대는 절대사이에 생긴 공간(空間)을 빗대칼로 엇비슷하게 질러나간다. 빗대를 질르고 나면 양태의 바탕이 곱게 다져진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대를 절어서 첨(簷)을 만들어, 많으면 300회(回)에 이른다.」 금제(金堤)를 上으로 하여 제주(濟州)의 산(産)이 이에 다음 간다. 일방(一邦)에 유포(流布)하여 제주양대(濟州梁臺)라고 한다고 보인다. 지금도 제주지방(濟州地方)에서 양태가 생산(生産)은 되고 있다하지만 조품(粗品)이며 금제(金堤)는 자회 조차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거제일우(巨濟一隅)의 모노인(牟老人)이 돌아가면 고운 양태는 또다시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양태 하나를 짓자면 한 보름은 걸어야 하며 지금 시가(時價)는 고운것이라야 육백(六百)원 전후(前後)이니 숨씨나 노고(勞苦)에 비겨 값이라고 할것이 없다.

총모자 장인(匠人)으로는 경남충무시문화동(慶南忠武市文化洞)의 고재구(高在九)(6기歲)氏가 가장 좋은 숨씨를 지녔다. 총모자 일은 말총이 날줄감 쇠꼬리 털이 절임줄감이다. 총모자를 절이는 순서는 일곱을 세워서 모정(帽頂)에 말총 여덟줄을 열여섯 가닥 되게 겹쳐서 한뭉음으로 하여 네 뭉음을 정자(井字)로 엮어 붙인다. 따라서 처음 날줄이 六十四줄로 된다. 절임줄을 절이는 과정(過程)은 양태 절이는 방법(方法)과 같다. 모정(帽頂) 둥근 부분(部分)의 절임줄은 100회(回) 측면(側面)은 200회(回)로서 도합(都合) 300회(回)이며, 절임줄을 절어서 내려 가는데 따라 날줄 사이가 성기데 되므로 그대마다 네 번에 걸쳐 사잇줄을 넣어 그 도합(都合)이 512줄이 되게 한다. 다 절인 다음에는 작은 쇠칼로 총모자를 고르고 골에서 뺀 다음, 뒤집어서 먹칠을 하면 끝이 난다. 젊었을 때 숨씨라면 하나 절이기가 닳새 아니면 열흘이 고작 인데 지금은 늙고 시력(視力)도 가셔서 20여일(餘日)이 걸리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총모자(帽子) 상품(上品) 하나가 5, 6원 이라니 이것을 날로 풀이 하면 하루 2, 30원 벌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形便)은 불문가지(不問可知)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평생(平生)을 익히고, 세상(世上)에서도 드문 자랑스런 수공예(手工藝)의 명장(名匠)들이 입에 풀칠조차 어렵다는 것이 민속공예(民俗工藝) 인멸(湮滅)의 가장 두들어진 요인(要因)을 이룬다고 하겠다.

각설(各設)하고 위에 적은 바는 갓방에서 갓을 모우는데 필요(必要)한 것을 만드는 장인(匠人)이고 갓방에서는 갓방대로 다음의 공정(工程)을 거쳐서 갓하나를 모우는 것이다. 이에 앞서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갓의 종류(種類)이니 진사(眞絲), 입음양사입(笠陰陽絲笠), 포립(布笠)의 네가지 이다.

진사립(眞絲笠)은 갓 가운데서도 귀인(貴人)들만이 쓸수 있었던 극상품(極上品) 이었다. 바탕이 고운 양태에 모자도 총모자 아닌 대모자를 쓰며, 수장할 때 양태나 모자에 촉사로 등사(騰絲)를 한 것이다.

음양사립(陰陽絲笠)은 양태에 총모자를 얹어서 촉사로 등사(騰絲)한 것으로 진사립(眞絲笠) 다음가는 상품(上品)이다.



입 자 장(笠子匠)

음양립(陰陽笠)은 양태에는 포(布)를 입히고 총모자에는 등사(騰絲)한 것이다. 음양사립(陰陽絲笠) 밑이다. 포립(布笠)은 양태와 총모자에 포(布)를 입힌 것으로 하품(下品)이다

이 갓을 모우는 재료(材料)로는 양태, 총모자, 대, 촉사, 모사, 옷, 떡, 부래풀 창호지 등이 들고 도구(道具)로는 갓판, 운기골, 은각곡, 대우골, 수장골, 정다지는골등 골덩이와 대인두, 소인두, 골자루와 골자루판, 주배기, 주배기자루, 풀귀알, 떡귀알, 칠귀알등 귀알과풀통, 떡통, 칠그릇, 화로(火爐), 칼, 송곳, 들대, 애빼대, 속새, 칠장등이 든다.

진사립(眞絲笠)의 경우 공정(工程)은 양태를 만들때와 같은 방법(方法)으로 대오리를 뽑고, 운기를 모운다. 그 다음에는 은각을 모아서 대우를 모우고는 수장을 한다. 수장이 끝나면 버령을 잡아 양태의 배가 블록하여 보기 좋게 한다. 그후에 비로서 갓 모우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갓 모우기의 순서(順序)는 먼저 모자와 양태를 부래풀로 붙인다. 이것은 모자를 박는다고 한다. 모자를 박은 다음에는 은각 모운 것을 선을 따라 한칸을 대우 아래에 맞추어 가위로 오려낸 위에 창호지를 오려서 만든 은각새를 대우 안에 붙인다. 땀두리 안둘레에 그와 같은 폭(幅)으로 종이장 처럼 얇은 땀테를 붙인다. 송곳으로 땀두리에 갓끈 구멍을 뚫는다. 애빼대와 속새로 못테, 철테, 땀테, 땀두리를 매끄럽게 문질러 다듬는다.

이와 같이 해서 갓 모우기가 끝나면 비로서 떡으로 갓 전체에 칠을 하고, 옷장 안에 입으로 물을 뿜어서 떡칠이 마른갓에 옷을 입혀 옷장에서 20시간(時間)을 두었다가 꺼내면 완성(完成)이 되는 셈이다.

위 공정(工程)은 혼자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大部分) 四, 五人의 장인(匠

人)이 분업(分業)으로 한꺼번에 四, 五十個를 만들어 내게 마련 이다.

갓일 가운데서 가장 어렵기는 진사립(眞絲笠)을 만들기 이다. 사립장(絲笠匠)이 되자면 10年 이상(以上)은 배워야 한다. 갓일에서 먼저 배우기는 운기 모우기 이며 다음이 은각 모우기 이다. 두 기초공정(基礎工程)을 익히고 나면 대우 모우기에서 수장하기와 버렁잡기로 넘어가서 끝장에 가서야 비로서 갓모우기를 손에 잡는 것이다.

지금 충무시(忠武市)의 입방(笠房)으로는 유상윤(劉尙允), 전덕기(田德基)의 두 노장(老匠)이 있으나 유씨(劉氏)는 이미 90 고령(高齡)으로 일손을 놓다 싶어 했고, 전노인(田老人)만이 일을 하고 있다. 전노인(田老人)도 금년(今年) 71歲라 아직 정정하다고는 하나 얼마나 수(壽)를 할지 알 수 없겠고 그 아래서 수장일을 보는 김봉주씨(金鳳珠氏)나 골베기를 하는 고재구씨(高在九氏)가, 다 같이 60이 넘은 年수이다. 이들이 일숨씨를 마지막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숨씨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作故 하는 날이면 갓일은 우리 땅에서 되살아 나기가 어렵겠기에 하는 말인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문뚝문뚝 이는 불안(不安)과 초조(焦燥)를 금(禁)할 길이 없다. 기왕(己往)에 갓은 수요(需要)가 없어져가고 있으니 시대(時代)에 따라 그 자취가 사라져 가는 것도 도리(道理) 없는 노릇이라 하겠으나 공정(工程)이나마도 기록(記錄)해 두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후인(後人)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인가 한다. 비단(非單) 입자(笠子)에 한(限)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라져 가려하는 민속공예분야(民俗工藝分野) 전반(全般)에 걸쳐 다 그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방법(方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첫째 무엇과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전국적(全國的)인 규모(規模)로 알아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그것이 고유(固有)한 민속공예(民俗工藝)로서 귀(貴)한 것이라면 국가(國家)가 지정(指定)을 서둘러서 보호(保護), 육성(育成)에 힘써야 하겠다.

위의 두가지 일을 전제(前提)로 하는 기록(記錄)의 문제(問題)를 제기(提起)하자면 문교부(文敎部)의 문화재 관계당국(文化財 關係當局)이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하는 것과 동시(同時)에 공보부산하(公報部傘下)에 있는 국립영화제작소(國立映畫製作所)가 자동적(自動的)으로 직각(直刻), 그 장인(匠人)의 모습과 작업(作業)의 모든 과정(過程)을 촬영(撮影)하도록 하는 조치(措置)가 뒷받침 되었으면 한다.

이런 일들이 어느 개인(個人)의 힘으로 되기에는 경비기타(經費其他)로 하여 어렵다고 하겠지 마는 정부(政府)가 그 본래(本來)의 기능(機能)을 살여 하기로 들면 손쉽게 되어 질것으로 믿고, 또 지닌바 의의(意義)도 클 뿐만 아니라 그만큼 보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筆者)로서는 문교(文敎) 또는 공보(公報) 행정(行政)의 역대장(歷代長)들이 무엇을 생각해 왔는지를 알길이 없으나 나라를 세운지 이십년(二十年)에 아직도 이런 기초적(基礎的)인 작업(作業)이 되어지지 않았다는데 대(對)해서는 이렇다. 변명(變名)의 여지(餘地)가 없을 것이다. 현직장관(現職長官)들도 이런 점(點)을 깊이 생각하여 위의 제언(提言)이 받아들여져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 만약(萬若) 이 일이 뜻대로 잘 안된다면 되어 질때까지 입으로 붓으로 힘 있는데까지는 기를 써볼 작정이다. 이승에 장인(匠人)으로 태어나서 이렇다 보람을 느껴 보지 못한채 한 평생(平生)을 쓸쓸히 살고 가야하는 그들을 위(爲)해서 필자(筆者)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 정도(程度)의 길밖엔 별(別)로 생각나는 일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필자중앙일보문화부장(筆者中央日報文化部長))